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로우 뉴욕 식품 및 농업 대회(GROW-NY FOOD AND AGRICULTURAL COMPETITION) 신청서 오픈 발표

업스테이트 뉴욕 식품 및 농업계 변화를 목표로 하는 300만 달러 규모의 대회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 전략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s)을 통해 지원받는 대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로우 뉴욕 식품 및 농업 대회(Grow-NY food and agriculture competition)의 1회전 신청서를 오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회는 뉴욕 핑거 레이크스, 센트럴 뉴욕, 서던 티어 지역에서 튼튼한 식품 및 농업 혁신 집단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3차로 이루어질 해당 대회는 각 회차용 지원금으로 식품 및 농업에 중점을 둔 혁신적 고성장 스타트업에 총 3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1등 100만 달러, 50만 달러상 두 개, 25만 달러상 네 개를 타기 위해 겨루는 대회 신청서가 전 세계 스타트업에 열렸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로우 뉴욕 대회(Grow-NY competition)로 해당 업계에 중점을 둔 혁신적 스타트업이 업스테이트 뉴욕에 정착하도록 끌어 모을 것입니다. 주정부는 우리 주 식품 및 농업을 변화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신규 회사들을 불러옴으로써 계속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 전역에서 중요한 해당 업계 성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식품을 만들며 농업은 우리 업스테이트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업에 대한 계속되는 투자에 기반하여 주정부는 해당 업계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로우 뉴욕 대회(Grow NY competition)를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조성하고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농장 및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므로 경제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올해 주지사의 주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본래 발표된 그로우 뉴욕 계획(Grow-NY initiative)은 43노스(43North),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76웨스트(76West) 등 기타 주 지원 대회와 성공적 결과에 기반합니다. 그로우 뉴욕 대회(Grow-NY competition) 지원금은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이 진행 중인 세 지역과 연결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s)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로우 뉴욕(Grow-NY)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는 톰킨스 카운티 이타카 캠퍼스(Ithaca campus) 및 제네바시 코넬 어그리테크 캠퍼스(Cornell AgriTech campus)에 있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센터\(Center for Regional Economic Advancement\)](#)를 통해 대회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승자들은 핑거 레이크스, 센트럴 뉴욕, 서던 티어 지역에서 최소 1년 동안 운영해야 하며 회사 이익 일부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자본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상금에 더하여 해당 대회는 마케팅, 행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운영, 홍보, 시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최종 우승자를 세 지역으로 데려가 회사를 개발하고 및 농업 및 식품, 혁신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키울 것입니다.

그로우 뉴욕 대회(Grow-NY competition) 신청서는 2019년 7월 15일까지 받습니다. 해당 신청서로 준결승 진출자 최대 20명을 선정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멘토링 및 사업 개발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진출자들은 11월 12일, 13일에 조셉 에이 플로리노 로체스터 리버사이드 컨벤션 센터(Joseph A. Floreano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릴 예정인 대중 심포지엄 및 무역 박람회 그로우 뉴욕 식품 및 농업 회담(Grow-NY Food and Agriculture Summit)에서 산업 판정단에게 자신의 사업을 홍보합니다. 이들의 홍보와 수반하는 사업 계획에 기반하여 판정단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 부문에서 상금을 받을 우승자 7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 **상업화 및 사업 모델 실행 가능성:** 참가자의 수익 창출, 경쟁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원가 구조 유지, 기술적 준비 구현 또는 회사의 가치 제안 완수 가능성
- **고객 가치:** 참가자가 고객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물건을 제공하고 큰 시장을 다룰 수 있는 정도
- **식품 및 농업 혁신:** 참가자가 식품 및 농업의 최신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시장에서 세계적 혁신 리더인 업스테이트 뉴욕의 위치에 기여하는 정도
- **지역 일자리 창출:** 그로우 뉴욕(Grow-NY)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가능성
- **팀:** 팀의 질 및 완전성, 결과를 낼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의 Howard Zemsky 사장, 최고 경영자 겸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우 뉴욕(Grow-NY)은 사업 경쟁으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뉴욕주의 지원을 지속하며 이제는 핑거 레이크스, 센트럴, 서던 티어 지역의 농사 및 농업 분야에까지 산업 기술 및 스타트업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세계 최상급 농업 및 식품 업계에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결과로 혁신을 확인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 계획은 우리 업스테이트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욕주가 국내에서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 풍부한 최고 식품을 만든다는 것을 알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코넬(Cornell)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센터(Center for Regional Economic Advancement)의 **Tom Schryver**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넬(Cornell)은 열정적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조성하고 식품 및 농업의 획기적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핑거 레이크스, 센트럴, 서던 티어 지역이 세계적 명성을 키울 장점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첨단 식품 및 농업 회사들을 모으는 데 작업을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의 공동의장 겸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 사장 **Anne Kress**(박사),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 소장 겸 최고 경영자 **Bob Duff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농업 및 식품업 성장에 중점을 둔 이러한 혁신적 대회를 지원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지역경제개발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는 Cuomo 주지사의 그로우 뉴욕 대회(Grow-NY competition)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산업 파트너와 기업가들의 최신 아이디어를 연결하도록 돕고, 지역 경제 발전 작업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에 반영된 저희의 다각적 접근방식을 추가로 지원할 것입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위원회(Central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Randy Wolken** 공동 회장, 센트럴 뉴욕 제조자 연합(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rk)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오스위고 캠퍼스의 **Deborah Stanley**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농업 및 식품업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그로우 뉴욕 대회(Grow-NY competition)는 우리 지역사회에 또다시 흥미로운 투자를 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센트럴 뉴욕 전역에서 지역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농업 기반을 지원하며 지역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Harvey Stenger** 공동의장 겸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 회장, 경제개발을 위한 스카일러 카운티 파트너십(Schuyler County Partnership for Economic Development)의 **Judy McKinney Cherry**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업은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투자와 함께 하는 이 계획은 우리 지역에서 계속되는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로우 뉴욕 대회(Grow-NY competition)는 혁신적, 경쟁적

사업체들을 발견할 것이며 서던 티어 부흥을 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저희의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61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발생 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이 주정부 투자는 25억 달러를 훨씬 넘는 민간사업체의 투자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5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이 주정부 투자는 25억 달러를 훨씬 넘는 민간사업체의 투자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주정부는 이미 2012년 이후 이 지역에 6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정부가 조성한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이 주정부 투자는 25억 달러를 훨씬 넘는 민간사업체의 투자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